

트렌드 & 스타일

쓰레기가 꽃이 된다... '에코 패션'



국내 첫 재활용 패션 브랜드 '에코 파티 메어리'

'패스트 푸드'는 알겠는데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뭐야? 최근 영국의 인터넷서널 헤럴드트리뷰가 캄보리지대 보고서를 인용해 '패스트 푸드'가 비만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나쁘다면 '패스트 패션'은 과도한 의류 쓰레기를 양산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을 신속하게 반영할 뿐 아니라 가격도 싸서 한 두번 입고 버리는 옷을 말한다. 가격부담이 없어 유행이 바뀌면 쉽게 버리고 또 쉽게 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류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낸다. 특히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13달러 안팎의 저렴한 패션 물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우리나라 역시 몇몇 저가 브랜드를 비롯,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옷이 인기를 끌면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친환경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반가움을 준다. 일반인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품으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는 헌옷과 폐현수막 등 버리는 물품을 재활용해 만든 국내 최초의 재활용 패션 브랜드 '에코 파티 메어리(Eco-Party Meary)'를 출시했다.

'아름다운 가게' 친환경 패션 브랜드 출시
헌옷·폐현수막 등 버리는 물품 재활용
옷·가방·지갑 등 패션용품으로 환생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브랜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에코 파티 메어리'는 김동환·윤진선씨 등 젊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이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널린 현수막, 낡은 소파, 헤진 스웨터 등이다. 의류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된 중고의류중 도저히 팔 수 없는 수준의 것을 원단으로 사용한다. 가방이나 필통 등 소품은 각 구형에서 수거한 현수막과 가림막을 활용하고 가죽제품은 소파 천같이 업체들에 제공한 가죽으로 만든다. '에코 파티 메어리'는 지난달 런칭 기념 전시회를 열고 헌옷을 새롭게 디자인한 옷, 공사장 가림막을 활용한 크로스백 등 20여종의 재활용 패션용품을 선보였다. 친환경 재활용 상품이지만 버리는 물건을 다시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젊은층에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현재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 첫 매장을 냈으며 인터넷 매장 '1300K(www.1300k.com)'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그린디자인을 전공하는 이경재씨는 일본 업체가 시범적으로 생산한 원단을 제공받아 친환경적인 옥수수수딩 드레스를 선보였다. 이 드레스는 육안으로 보면 일반 실크 드레스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100% 옥수수 전분만을 사용한 원단으로 제작돼 땅에 묻으면 4주만에 완전히 분해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활용 패션 브랜드인 '에코 파티 메어리'가 선보인 패치워크 마플러는 옷입는 스웨터 5가지를 조합해 만든 제품이다.

친환경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 목적으로 전시회를 통해 드레스를 선보이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드레스를 직접 제작해 주기도 한다. 최근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에는 옥수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던 부부가 드레스 제작 살비 전액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사연도 올라와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 봄 메이크업
파스텔톤 컬러에 반짝반짝 '펄 소녀' 싱그러움 봄맛이

입춘이 지나면서 봄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겨울에 유행했던 화려한 스모키 메이크업은 지워버릴 때가 될 듯. 올 봄에는 가벼운 메이크업이 대세다.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파스텔톤 컬러로 봄의 생기를 표현해 보자.

◇그린 색대로 생기있게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바이 이경민이 추천한 봄 메이크업은 화이트, 민트 그린, 피치 등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사용해 싱그러움 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디자이너 이경민 씨는 "은은하게 반짝이는 민트 그린 컬러로 모던하게 표현한 눈매와 글로스로 달콤하게 표현한 입술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번 봄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우선 미세한 팔이 함유된 메이크업 베이스와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라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연출한다. 리퀴드 컨실러로 다크 서클을 커버한 뒤 극소량의 파우더로 마무리한다. 아이세도는 민트그린 한 가지만 사용해 세순이 돌아오는 듯한 컬러감을 주면서 최대한 가볍게 표현한다. 미세한 팔이 함유된 민트그린 컬러를 눈꼬리부터 양머리까지 그라데이션해 눈두덩에 부드럽게 펴바르면 된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아이라이너로 메워 주고, 블랙 마스크라로 마무리해 눈을 더욱 커보이게 한다. 입술은 팔이 들어있는 딸기색 글로스를 발라 달콤한 느낌이 나도록 한다. 볼에는 산호색 볼터치를 광대뼈 부분을 감싸듯 발라 발랄함과 생기를 더한다. /연희뉴스



▲타폴린 가방=서울문화재단 건물의 리노베이션 당시 공사장 가림막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재활용한 가방이다. 방수 100% 원단으로 눈과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더러워져도 쉽게 닦아낼 수 있는 편리성이 강점이다. 크기도 넉넉해 중요한 서류 등을 구겨지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가방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어 휴대폰이나 카드 지갑 등을 넣을 수 있다. 토트백 9천원, 보조가방 4천3천원.

▲가죽다용도 케이스=옷 쓰는 소파 가죽을 재활용했다. 봉장, 명함, 돈, 카드, 화장품 등 필요한 소품을 모두 넣을 줄 맡아 다닐 수 있어 좋다. 여성들의 경우 카드 지갑, 돈지갑, 화장품 파우치 등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1만3천원. ▲패치워크 마플러=옷입는 스웨터 5종을 짜깁기해 만들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마플러라 인기가 높다. 3만5천원.



재활용 패션 브랜드 '에코 파티 메어리'의 인기상품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in Real Estate, LCA Tower,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with contact information.